

朝鮮語 綴字法의 基礎

조선 어문 연구회

내 용

제 1 부 조선어 철자법의 기본 원칙

1. 철자법이란 무엇인가?
2. 철자법에는 어떠한 원칙들이 있는가?
3. 역사주의 (歷史主義) 철자법과 그 난점 (難點)
4. 표음주의 (表音主義) 철자법과 그 결함 (欠陷)
5. 형태주의 (形態主義) 철자법과 그 우점 (優點)
6. 훈민정음과 그 철자 원칙
7. 주시경 선생과 형태주의 철자법
8. 조선어 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
9. 조선 어문 연구회의 “조선어 신 철자법”

제 2 부 朝鮮語 철자법의 주요 규정(規定)

1. 첫소리 (頭音) 의 표기 (表記)
2. 중간소리 (語中音) 의 표기
3. 끝소리 (末音) 의 표기
4. 어간 (語幹) 과 토
5. 결합모음 (結合母音) “이”와 “으”

6. 어간과 토티의 줄음
7. 두가지의 "이" 음
8. 소위 "변적 용언"의 처리
9. 자모 (字母)

(부록 : 받침 쓰는 법)

제 1 부 조선어 철자법의 기본 원칙

I. 철자법이란 무엇인가?

철자법이란, 한 언어를 자기의 글'자로 표기할 때 준수하여야 할 규칙의 총체다. 일정한 철자법이 있어야 비로소 한 민족의 언어와 그 표기법이 통일될 수 있으며, 언어와 그 표기법이 통일되어야 비로소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호상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 "사라미" "살아미", "사람이" 등의 가능한 표기법 중, "사람이"만이 옳은 것으로 인정되며, 똑 같이 발음되는 "입"과 "잎", "벗다"와 "빌다"가 구별되어 표기되는 것도 일정한 철자법 상의 규칙에 의하는 것이다.

2. 철자법에는 어떠한 원칙들이 있는가?

철자법에는 포음주의, 형태주의 및 역사주의의 세 원칙이 있다.

표음주의 철자법에 있어서는, 매개음 '문' 자는 '자모표에'에 배정된 음'가 (音價) 를 보유하고 현대음에서 실지 발음되는 대로 표기하며, 표기되는 대로 발음할 것을 주장한다. 조선어 철자법에서례를 찾는다면, 부분적인 경우, "許諾"을 "허낙"으로, "會黨"을 "회령"으로 표기하는 것, 같은 "糖" 자를 포함한 "糖分"과 "沙糖"을 "당분"과 "사탕"으로, 같은 "降" 자를 포함한 "降服"과 "昇降"을 "항복"과 "승강"으로 구별하여 표기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형태주의 철자법에 있어서는, 어 또는 어의 부분 (여러 어에서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이 어떠한 위치에서나 동일하게 표기되며, 때로는 반드시 발음과 엄밀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다른 모든 경우에 그 어나 어의 부분이 표기되는 것과 똑같이 표기된다. 조선어 철자법에서 "갈다", "갈아", "갈이"의 "갈"의 부분이 실지로는 제각기 달리 발음됨에도 불구하고 "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갈"의 부분이 언제나 동일하게 표기되며, "업다" (負), "엮다" (攪), "없다" (無) 가, 다같이 [업다]로 발음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 "엮다"로 표하지 않고, 모음로, 가령 "어"로가 다음에 올 적에 [어버], [어퍼], [업서]로 발음되는 것을 고려하여, 어간과 로가 어떠한 위치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업", "엮", "없"의 형태를 고정하고, "-다", "-어", "-스니" 등의 형태를 고정하는 것은 형태주의에 의거한 철자법이다.

역사주의 철자법에 있어서는, 오늘날 살아 있는 언어의 실제

발언이다. 문법적 형태와는 관계 없이 과거 역사상에서 포기된 방식은 그대로 존속된다.

조선어의 철자법에서 예를 찾는다면, 부분적인 경우, 설저에는 [디]로 발음되면서도 “시”로 표기되는 “하웃”, “무뫼”, “자칫하면” 등의 “하”, “뫼”, “치”, 등을 들 수 있다. 이 역사주의는 일명 어원주의라고도 하는 바, 이는 그어의 추정되는 어원적 원형을 포기상에 명시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이상과 같은 철자법의 여러 원칙 중, 대개 언어는 그가 가진 개별적 특수성에 따라, 외거한 원칙 몇 원칙들의 배합이 각기 다르다. 예를 들면, 로씨야어에서는 기본적으로 형태주의가 준수되어 있으며, 영어, 불란서어 등에서는 역사주의 철자법이 주도적(主導的)이다.

그렇면 이상의 세 원칙중, 조선어의 철자법은 기본적으로 어느 것에 의거하여야 가장 타당하다 할 수 있을까?

3. 역사주의 철자법과 그 난점

먼저, 역사주의 철자법은, 그가 오랜 인습과 전통의 산아인 만큼, 철자법이 이미 확고하게 굳어진 언어에서는 별문제로 치더라도, 이제로 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철자법이 제정되는 조선어에 있어서는 도저히 그 기본 원칙으로 될 수 없음을 자명히 한다.

4. 표음주의 철자법과 그 결함

다음 포음주의 철자법은, 현대어에서 실지 발음되는 대로 포기하며, 포기되는대로 발음할 것을 주장하는 만큼, 첫번 보기에 가장 간편하고 가장 적당한 것 같이 생각된다. 그렇나 자세히 살펴 보면 이 철자법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첫째, 이 철자법은 언어—내지 문자—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 언어가 인간의 사회적 생활의 면에서 발생한 인간 교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청각 (聽覺) 또는 시각 (視覺) 으로 지각할 수 있을 그 기호 가운데에 인간의 사회적 의식의 내용이 표현되는 만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언어와 사유 (思惟) 가 긴밀한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를 단순한 음향 (音響) 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유 그 자체, 그것도 단 하나의 사유가 아니라, 사유교체 (思惟 交替), 세계관 교체의 축적 (蓄積)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의 사상전달, 의사 표시라는 중요한 사명과는 무관하게 단지 무의미한 음발음만 표시하려는 포음주의 철자법은 언어—내지 문자—의 본질에 배반되는 것이다.

둘째, 이 철자법은 자각된 원칙에 충실하려 할 경우, 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포음주의 철자법은 음운문자이면 모든 포음주의를 채택하여야 할 터거나, 포음문자이면 모든 음운을 표시할 수 있다는 초박한 선양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어음은 결코 수30개의 몇개 문자로 적히 보이며 주는 파와 같은 그러한 단순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보통의 문자표지는, 무수한 인간의 어음을 엄밀히 표시할 수 없는데, 그 것은 문자표, 결례로 단하나

의 음가를 가치는 것이 아니다. 그 위치에 따라, 전후의 음의 성질에 따라 각각 다른 음가를 가지는 까닭이다. 일러도 “가치”(價値), “원기”(元氣), “원가”(原價), “학년”(學年), “입학”(入學) 등의 어에 있어 매개의 “ㄱ”자가 가지는 음가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한 글자의 음가가 얼마나 (다채) 한가를 깨달을 수 있다. 또한 한 음을 표시하는 예도 문자는 여러 종류 있을 수 있다. 내파(內破)의 [ㄱ] 음을 표시하는 데 “ㄱ, ㄲ, ㄱᄀ, ㄱᄂ”의 네가지 문자가, (“곡”, “부엌”, “밖”, “넋”), 내파의 [ㄷ] 음을 표시하는 데 “ㄷ, ㅌ, ㅌᄀ, ㅌᄂ, ㅌᄃ, ㅌᄄ”의 일곱 가지 문자가 (“꿈”, “들”, “있다”, “심다”, “넋”, “꽃”) 사용될 수 있다. 즉 철자법에 있어서 1자 1음, 1음 1자 주의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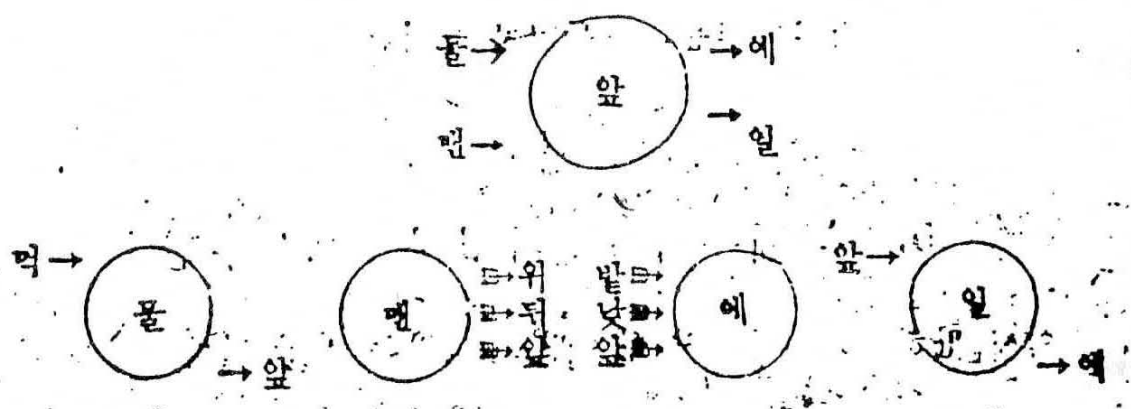
5. 형태주의 철자법과 그 우점

이에 반하여, 형태주의 철자법은 인간의 사상, 전달, 의사 표시라는 언어의 본질적 사명으로부터 출발하며, 문자의 가치는 포음성과 포외성의 동일적 성격에 대한 성찰(省察)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형태주의 철자법은 의미와 우연적 관계밖에 가지지 않는 개별적 어음이나 음절을 그 표기의 단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있어 의미의 단위로 되는 최소의 요소, 즉 형태부(형태부란 接頭辭, 語根, 接尾辭, 로 등 한개의 어에 있어 유의미적 최소의 단위를 말한다. “사내 단다”는 “사내”, “수”, “다”의 세개

'의 형태부로 분할되며, 이 이상 "사내"를 단지 "사"와 "내"로 분할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사내"의 의미가 파괴되는 까닭이다.) 물론 그 표기의 기초로 삼고 있다. 더구나, 조선어에 있어 매개의 형태부는 그 경계가 선명하기 때문에, 형태부를 표기의 단위로 삼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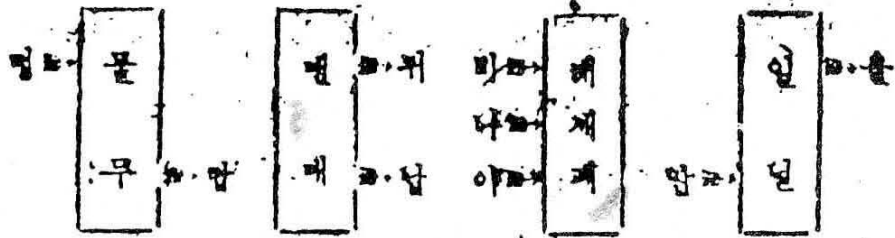
이제 형태주의에 따라 적은 "물앞", "맨앞", "앞에", "앞일"과 포음주의에 따라 적은 "무팍", "대남", "아예", "앞걸"을 바꿀하면 다음과 같다.

형태주의에 의한 철자법



포음주의에 의한 철자법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태주의 철자법은 형태부품 그 토기의 단위로 삼기 때문에, 매개의 어가 가지는 조어상의 생산성, 다시 말하면 동족어 (어근을 공동으로 가지는 어) 사이에 발음상, 편편성에 그 기초를 두어, 매개의 어의 의미 파악과 어사조성 (語詞造成)에 커다란 편의를 준다.

이에 비하여, 모음주의 철자법은 토기의 기초를 의미의 발원인, 형태부에 두지 않고, 매개의 어 또한 합성어에 무기 때문에 동족어 사이의 호상 편편성은 거부되고 의미의 직관적 파악은 모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형태주의 철자법은 다음과 같은 우점을 가진다.

1. 독서상의 리해불 용어하께 한다.
2. 구두어 (口頭語)에서의 동음이의어 (同音異義語)를 표기 상에서 피할 수 있게 한다.
(예: 입[口], 잎[葉]; 밭다[屬], 밭다[蔓]; 역사[役藥], 역사[歷史]; 령금[鎔金], 년금[年金], 연금[捐金])

말어의 조성, 리해에 편리하다.

예: 음덕론 (음+덕론)

동족어의 통일된 통일성을 촉진시킨다.

만약, 형태주의 원칙에 좇아 인간의 의식 전달과 형태주의 고정적 표기만을 요구한다면, 가장 우수한 문자는 중국 한자와 같은 표의문자일 것이며 (한자의 하나 하나는 개별적으로 의미를 가진 형태부다), 설지 이러한 점에 표의문자의 우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언어는 또한 반드시 성음을 통하여 지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도 단지 의미문만 아니라, 성음의 면도 표시하여야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문자는 표의성과 함께 표음성도 가지어야 한다. 이러한 표음성의 결여되어 있는 점에 한자의 커다란 결함이 있는 것이다. 한자의 구성법의 하나인 형성(形聲)의 방법(한자에 표음성을 주는 방법, 예 “訪, 訪, 枋, 仿” 등)이 다른 방법보다 뒤늦게 고안되어 가장 널리 사용된 것도 한자가 문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당연한 경로였다.

6. 훈민정음과 그 철자 원칙

조선 문자는 다행히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자와 반대로, 표음성이 아니라 표의성이다. 15세기 중엽 훈민정음이 창제된 초기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표음문자가 발명된 당초, 그리하였던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표음주의에 따라 포기되었고 부분적인 경우에만 형태주의 철자법이 준수되었다. 그러나 그 후 전반적으로 조선어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자 문자의 학습에 단지 음절을 표시할 뿐인 “한글 본문”의 무의미한 명송(朗誦)에만 의존하고 어떻게 하면 조선 문자가 사람들 사이에 상통

한글 자는 한자 한자가 형태부를 이룸으로, 어중 어말에서 “ㅇ, ㄴ” 용언 나면, 이를 표기의 단위로 삼아, 그 형태부를 어중이나 어말에 붙여 같이 어두게서도 고정적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두에 오는 경우는 어중, 어말에 오는 경우와 차별하여 규정하였다.) 용언의 표기에 있어 언어 현실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다한 편격용언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조선어의 형태적 구조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언어에 있어서의 형태론과 음성론의 조상면관성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며, 조선어문 운동이 처한 역사적 단계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여, 민족어가 이미 완전히 통일되고 철자법이 고정된 외국의 경우에 맹종하여 외국에서는 근래 각모수들 증가시킨 일이 없다는 이유 밑에 자모 24자에 만족한 까닭으로, 그곳에는 아무런 전진에의 전망과 발전도 예견되지 않고 있다.

결국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주 시경 선생의 확신을 지송하면서도 이를 더 앞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단지 부분적인 개량에 그치고 만 것이다.

9. 조선어문 연구회의 “조선어 신 철자법”

해방후 1947년 북조선 인민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조직된 “조선어문 연구회”는 민족 공통어의 최후적 완성, 즉 조선어문의 재정합 통일과 발전을 위하여, 한자 철폐와 훈자 개혁을 꾀하는 철자법의 새틀을 자기의 당면 과업의 하나로 내세

었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주시경 선생의 사상속에 배
해되고 조선 어학회에 의하여 계승된 철자법상의 형태주의 원칙을
더 한층 발전시킬 것이 요구되었다. 이 요구에 부합한 것이 수
·0년 간의 학적 연구에서 완성된 김두봉 선생의 문법내지 철자법
상의 세루니 견해였으며, 이 사료니 견해를 토대로 하여 조선 어
문 연구회는 1948년 “조선어 신 철자법”을 발표하여 조선어문
운동 사상에 또 하나의 비약의 발자국을 남기게 되었다.

“조선어 신 철자법”은 진정한 과학적 세계관에 기초를 둔 언
어 이론으로 부러 출발하여 형태론과 어음론과의 조상편관성, 생
용의 면에 대하여 의미의 면이 가지는 우위성등을 옳게 인식하고
형태주의 원칙을 일관하여 채택하였다.

조선어문 연구회 “조선어 신 철자법” (1948년, 평양 총론에

1. 조선어 철자법은 현대 조선 인민의 언어 의식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일정한 형태로 포기함으
로써 원칙을 삼는다.

조선어 철자법은 그 표기에 있어 일반 어음학적 원리에
의거하여 조선어에 고유한 발음상의 제 규칙을 존중한다.

라고 있는 것은 그가 의거하고 있는 원칙을 명시한 것이며, 이
표기 문자 표기에 있어서의 포의성과 표음성의 진정한 통일성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 철자, 한자어 표기에 있어 (韻譜 2. 1의 표기), 한자어

(125)

의 포기(에 있어) (불리부⁵의 상용은 용인 활용에 있어 (상문자
 의 추가) 적지 않은 변동은 종래의 철자법에 가지어 왔으나, 이
 는 멀지 않은 장래의 한자 철자와 문구 개혁을 앞두고, 조선 어
 문의 통일과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겪어야 할 철자법 상의 개정
 이며, 이것 없이는 조선 민족이 우수한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도
 그 진(眞價)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들리기 쉬운 한자어

軌道	궤도	缺乏	결핍	滑稽	풍기
敎唆	교사	交叉	교차	對峙	대치
掉尾	도미	囹圄	형어	盟誓	맹서
跋扈	발호	不當	부당	不足	부족
不朽	불후	文句	문구	兵站	병참
週及	소급	十月	시월	陰路	애로
語句	어구	惡寒	오한	情願	중오
衛戍	위수	遲延	지연	敗北	패배
乾燥	건조	歪曲	의곡	擅着	동착